착한책방 독서모임 안내

문의 신청 010-4405-0731 (책수달)

책이 활동으로 피어나는 작은 그물망
북작커먼즈

모임 정보 날짜 매월 4째주 목요일 저녁 7시 15분
장소 착한책방

인문·생태·사회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는 모임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활동, 나눔의 작은 커먼즈를 지향합니다.

진행했던 지정도서



지혜로운 눈을 밝히는 책모임
혜안서가 (慧眼書架)

모임 정보 날짜 매월 3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착한책방

영성, 명상, 심리, 뇌과학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생각과 삶을 나누는 독서모임입니다. 일상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가꾸는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제한되지 않는 열린지평에서 마음과 뇌과학 분야를 탐구합니다.

진행했던 지정도서



AI 시대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박숙자(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AI 시대에 더 나은 글쓰기에 관한 고민과 길찾기에 대한 강연

날짜 장소 **7월 5일(일) 오후 2시~ 3시 30분 착한책방**

대학에서 2년간 글쓰기 수업을 기록하며 성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글쓰기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

북토크 후, '책과 글쓰기'에 대한 작가님과의 자유로운 대화 & 티타임 시간 마련

참가자 전원에게 《쓰기교양》책 증정
(인생독서X인생책방 사업비 지원)



착한책방 북토크 안내

우리동네 다른책방도 소개합니다

곰씨네그림책방 Since 2019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42 대길프라자 301호
@bears-picturebook



#신도시 #그림책 #아동학박사

곰씨네그림책방은 2019년 1월 다산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시작한 책방입니다.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다산한강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그림책들을 선별하여 팔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그림책으로 하는 사고교육으로 박사 논문을 쓴 아동학 박사입니다. 육아와 그림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독서가 Since 202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33번안길 2, 1층
@gongdockbooks



#누구나 북스타트 #독서교육 전문가 #함께 읽기

책 읽는 동네, 책 읽는 가정을 꿈꾸는 작은 책방입니다.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 작가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발굴해 만든 독서 꾸러미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네 독서가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독서모임은 물론 지역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줌 독서모임도 운영 중입니다.

마음쉼표, 착한책방스테이

마음쉼표, 착한책방스테이는 하루 한 팀만 받는 독채 숙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1,800여권의 서적이 구비되어 있어 책과 함께 쉼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인까지 이용 가능한 본채스테이,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며 3인까지 이용가능한 별채북스테이 그리고 11인까지 이용가능한 본채와별채스테이 3가지 옵션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당 파고라에서 바베큐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밤하늘을 보며 불멍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커플 또는 모녀 여행 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 여행, 단체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며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느끼셨다는 분들의 후기가 많습니다.





착한책방 북스테이

예약 https://naver.me/G58bTSgy

★★★ 리뷰 ★★★

숙소도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사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쓰신 게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집안 가득 꽂혀있는 책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즐길 수 있게 다양한 수준과 장르로 준비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 잠자리 독서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 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기 전까지 책을 보다 잤네요. 1박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곳이네요. 평화로운 숙소에서 즐겁게 머물다 갑니다! -또니***님

이름처럼 책이 주는 편안함이 가득한곳이라 어른들도 힐링하기 좋았어요.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책도 둘러보고 이쁘다고 감탄하고 책도 꺼내보고, 서로 공유하는 모습들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숙소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공간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져서 머무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제주도 감성숙소 같은 분위기라 너무 힐링되었어요~ - asn***님

본 신문은 2026 인생독서X인생서점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착한책방입니다

착한책방&스테이

공동체활동의 거점공간 역할

마음쉼표, 착한책방&스테이는 쉼과 회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웃들과 함께 독서모임, 마을텃밭 운영, 북토크, 음악회 등 문화행사, 마을공론장 활동 등 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책 구매 및 공유서가 이용이 가능한 동네책방, 북스테이 숙박 그리고 직접 로스팅한 핸드드립 커피가 대표 메뉴인 북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책방지기 책수달과 Juliwawa, 그리고 디자인 담당 무비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책수달 (책방지기)

<그럴수동>소식지 창간사

뿌리 내리기

말에서 글로, 환경에서 고향으로

십여년 전 수산리에 살았을 때, 그곳에는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오신 어르신이 있었다. 그분은 중증 치매 환자셨는데,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지내셨고 늘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분은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초능력이 있었다. 거의 매일 수산리 마을회관 앞에서 버스를 타고 마석까지 나들이 가셨다가 다시 버스로 돌아오셨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은 정류장에서 댁까지 3km 정도라서 시골길을 한참 걸어야 하는데, 길을 잃으신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나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막연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많은 이들은 환경이라고 하면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소중히 보존해야 하는 공기, 물, 숲, 동식물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환경은 사실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추상적이고 때로는 이념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된 어떤 개념인 것이다.

환경(環境), 문자를 옮기면 우리를 둘러싼 경관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세월이 필요하다. 그렇게 세월이 켜켜이 쌓인 환경이 바로 고향(故鄕)이 아닐까? 슬프게도 이 낱말은 이제 사전이나 문학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다. 수산리의 어르신에게는 삶이 뿌리내린 고향이 있었기에 기억이 희미해져도 고향의 산과 나무가 길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언제부터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된 채 삶으로부터 분리된 앙상한 환경만을 걱정하게 되었을까?

사랑과 추억이 깃든 공간은 말이 글로 뿌리내리기 더없이 좋은 토양이다. 인류학자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사람들이 모여 환대의 관계가 생겨난 공간이 '장소'로 거듭난다고 했다. 수동면의 착한책방이 그런 곳이 아닐까 한다.

이곳은 책, 커피, 숙소가 있는 곳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땅을 밟고 작물을 기르며 음식을 함께 해 먹는다. 때때로 나무, 허브 등 자연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든다.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가 쌓여 왔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 손님이자 이웃들이 의기투합, 작가가 되어 책방 신문을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시도가 그저 말이 글로 뿌리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책방이라는 공간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 환대하는 커먼즈의 장소로 더 활력있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그리고 곧 이웃이 될 많은 이들이 추상적인 환경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삶과 마음에 뿌리내린 고향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북작커먼즈 오Z (오승현)

착할수동



몸 쓰는 일의 즐거움

착한책방-앗간 수다

책방 일을 하다보면 은근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책을 고르고 들여놓는 일, 독서 교육, 스테이 준비와 홍보일, 커피 로스팅에 텃밭일까지.. 이것저것 하다보면 하루가 금세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몸이 고되서 피곤함을 느끼다가도 한편으로는 몸을 써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게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쉬는 날 집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생각을 비우고 싶은 마음에 책방 옆 '수동와밭'에 가서 잡초를 뽑고 땅 고르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땀도 나고 무엇보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적당히 움직이다 보니 몸에 활력도 생기더라구요. 텃밭의 생명을 만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얻게 되는 선물은 무엇보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비워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보면 이것저것 머리 쓸 일이 많은 요즘인데 몸쓰는 즐거움을 아울러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와 손발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수동마을에서 살다보니 이러한 수작(手作)의 솜씨를 지니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러한 솜씨쟁이 분들의 제안과 참여로 새로운 수작(手作)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수동마을에 있는 착한책방에서 책방과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그럴수동'이라는 책방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뚝딱뚝딱 손발의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수작(手作)의 즐거움이, 그리고 건강함이 번져가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지난 북작커먼즈 독서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서로서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이 사람들의 작은 그물망이, 이 모든 작은 주고받음-다정하게 흔들어주는 손, 연필로 그린 스케치, 나일론 실에 꿴 플라스틱 구슬들-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226쪽)

누군가에는 '모든 것'일 수 있고, '지구라는 이 행성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힘 자체'일 수도 있는 '작은 그물망'이 이렇게 저렇게 엮어져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수동마을이 되기를 그려봅니다.

| 책수달(책방지기)

그리움도 병

착한책방-앗간 수다

2013년으로 기억한다. 남양주 덕소에 "이층카페"라는 협동조합 카페가 있었다. 어느 건물 이층에 있어서 무심하게 지은 이름과 달리 지역의 문화를 살뜰하게 북돋는 활동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해 겨울 어느 지인의 소개로 그곳에서 열린 어떤 인디밴드 공연에 가보게 되었다. "은혜로운 언니들"이라는 명칭의 프로젝트 그룹이었다. 그 멤버 중 한 명이 가수 정밀아였고, 나는 그때 그를 처음 알았다. 그가 불러준 몇 곡의 솔로곡이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이듬해 그의 첫 솔로 앨범이 발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앨범 제목은 "그리움도 병". 냉큼 구매하여 한동안 즐겨 들었다. 특히, 그해 늦가을 수동면 수산리 계곡가 집에서 큰아이와 냇가가 보이는 뒷마당 데크에서 농사지은 고구마와 산에서 주워 온 밤을 화덕에 구워 먹으며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곡의 분위기뿐 아니라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이 앨범은 날이 쌀쌀해지면 자주 생각난다. 재작년(2024년) 겨울 초입부터 수동면의 북카페 "착한 책방"에서 이 앨범의 노래가 자주 들리곤 했다. 오랜만에, 게다가 집 밖에서 그의 음악을 듣기는 처음이기에 무척 반가웠다. 새삼 앨범의 제목을 떠올려본다. 2013년 그를 처음 알게 된 공연, 2014년 수산리에서 어린 아들과의 추억과 같이 아름다운 과거가 그립다. 그리고 좋은 공연, 우쿨렐레 수업과 같은 문화적 경험을 마련해준 "이층카페"가 그립다. 지금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생각해보면 나는 음악, 독서를 비롯한 문화적 활동, 공동체적 어울림의 기회를 제공한 그런 공간과 자주 조우해 왔다. 남양주에서만 덕소의 "이층카페", 호평동의 "공간, 시도", 수동면의 "구운" 등이 그런 곳이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모두 과거의 기억속에만 존재한다. 그런 공간들에 대한 그리움도 병이 될까? 그렇다면 지금은 수동면의 "착한 책방"이 내게 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 북작커먼즈 OZ (오승현)





노을의 시선

착한책방-앗간 수다

아버지 기일에 즈음해서 봉안당이 있는 강화도 갑곶 순교성지에 아내와 함께 방문했다. 미사도 드리고 촛불도 켜고 아버지도 뵈었다. 그리고 성지를 나와 모처럼 강화도 여행을 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박제된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도 보고 역사박물관도 둘러보았다. 준비해간 도시락도 야외에서 먹고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도 맛보며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가다 석모도 해변가로 향했다.

평일 오후여서인지 해변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등을 대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리고 마음이 무척 편안했다. 어릴적 아무 생각 없이 방안에 누워서 하릴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포근했던 기분이 떠올랐다. 그렇게 잠시 쉬다가 일어나 해변을 맨발로 걸었다. 부드러운 모래와 매끈한 조약돌들의 감촉, 발을 감싸는 바닷물의 느낌이 좋았다. 간혹 멈춰서 수평선과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저편 산등성이에 걸린 해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한참을 걸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눈이 부시던 윤슬은 어느새 노을 빛으로 바뀌었다. 걸으면서 지난 기억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다. 마음에 묵직하게 응어리로 맺혀있던 기억들... 노을빛을 받으며 걷는 동안 그 응어리진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억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비추어졌다. 노을은 하늘과 바다뿐 아니라 마음의 풍경도 새로운 노을빛으로 물들였던 것이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노을의 시선으로 삶을 돌아본 시간이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강화도의 저녁 도로를 차로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달리던 차안에서 차창을 열고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끼면서 모처럼 아이처럼 웃어보았다. 아내도 조금은 신이났다. | 책수달 (책방지기)

('북작커먼즈' 6월 독서모임 때 함께 읽은 <쓰기로 마음먹은 당신에게> 책에서 글감을 골라 쓴 글)

북작커먼즈 멤버들의 추천도서

들풀의 구원

지은이 | 빅토리아 베넷
출판사 | 웅진지식하우스 **출판년도** | 2021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은 한 단위의 기쁨과 한 단위의 슬픔으로 이뤄진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행복의 봉우리란 없고, 성취해야 할 완벽한 삶도 없다.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럽고 끔찍하고 아름다운 삶뿐이며, 나는 이 삶에 감사한다."

지나치게 예민하고 우울했던 그녀에게서 이 삶에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기까지,10여년의 일기를 담은 책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그녀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견디다보면 다시 살고 싶은 날이 올거라 믿어요.'견디다'의 정의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라고 해요. 잘 견뎌서 다시 봄을 맞이하길.

신간



커먼즈의 재생

지은이 | 우치다 다쓰루
출판사 | 유유 **출판년도** | 2026

커먼즈가 돌아온다! 일본의 실천가이자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가 제안하고 실천하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커먼즈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많이 배려해야 할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커먼즈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실천해보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마지막에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의 저자이자 공부와 실천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생태마르크스주의자 사이토 고헤이와의 대담도 기대됩니다. ^^

#건강한공동체 #배려

그림책



철학의 은유들

지은이 | 페드로 알칼데, 멀린 알칼데 기욤 티오 그림,만화
출판사 | 단추 **출판년도** | 2024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입니다.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의 내용을 그림과 도형, 키워드, 대표 저서의 핵심 문장 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예요. 심플하고 직관적이지만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사색으로 이끄는 그림과 색채가 특별히 인상적이예요. 새로운 시선으로 철학의 숲과 나무를 바라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철학 #사색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

지은이 | 배병삼
출판사 | 녹색평론사 **출판년도** | 2012

문명 전환에 대한 고민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20세기 말 서양에서 그 대안으로 인도, 명상, 영성에 꽂혔다면, 21세기는 유교가 그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영성에 대한 추구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오래된, 그래서 낡고 갑갑한 것으로 여겨진 유교가 사실은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사려깊은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교 #공동체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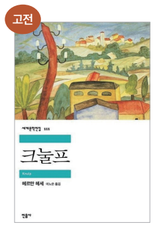
이처럼 사소한 것들

지은이 | 클레어 키건
출판사 | 다산책방 **출판년도** | 2023

영화[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원작으로, 앞으로 쉽지 않은 삶이 펼쳐지더라도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펄롱의 뚜뚝하고 진중한 모습이 인상적인 소설입니다. 타인을 연민하고 배려하는 사소한 마음들이 모여 따뜻한 생과 세상을 이룬다는 메시지가 마음을 울립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뇌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의미있는삶 #연민과자비

고전



크눌프

지은이 | 헤르만 헤세
출판사 | 민음사 **출판년도** | 2021

'크눌프'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고 어린 아이처럼 해맑은 방랑자로, 가정이라는 현실과 예술가라는 이상에서 갈등하던 헤세의 방랑욕구가 들어간 캐릭터입니다. 자유롭지만 무의미해보이기도 한 크눌프의 삶. 그러나 무용한 것에서 유의미함을 찾는 예술가의 삶이란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삶 아닐까요. 무용함을 사랑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방랑하는예술가 #예술의의미

신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

지은이 | 지웅배
출판사 | 쌤앤파커스 **출판년도** | 2026

세상 신기한 우주 이야기 가득한 수필집. 생각이 유연하고 앎을 자랑하지 않으며 늘 겸손하게 말하는 교수님, '우주먼지'로 자신을 소개하는 천문학자의 수필집입니다. 천 일 밤과 하룻 밤 더 이어진 아라비안나이트 이야기처럼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우주 이야기를 한가득 들려줍니다. 그리고 살짝 결이 다른 천문학자의 감성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심장이 주저앉는 것은 슬픔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본문 6장 중) 이런 감성.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정하게 '건네주는' 책.

#우주이야기 #천문학자의감성



그거 아세요? 까치 학명이 '피카피카'인거?

책 추천 - 새에 대하여

2026년 초봄, 나무기둥에 부리를 냅다 꽂아대는 오색딱따구리를 보았다. 머리 안 울리나 궁금해서 도감을 찾아 읽어보니 딱따구리는 아랫부리가 더 길어서 충격이 아래턱으로 전달되고, 기다란 설골과 두개골 뼈의 스폰지 구조로 뇌진탕을 겪지 않는다고. 험한 세상 버티려면 이정도 진화는 필수인가? 딱따구리 걱정하지 말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기로 다짐해본다. 딱따구리가 여기저기 나무에 낸 구멍은 다른 새들의 서식지가 되기도 한다니, 의도치 않았다 해도 선량한 녀석이다. 사랑해주자.

까치, 비둘기, 참새 못지않게 마을 인근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직박구리는 (옛날 윈도우에서 새폴더를 만들면 맨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 직박구리 맞다.) 다운폼 해주고 싶을 정도로 떡지고 삐죽거리는 머리카락이 특징인데, 비교적 구별하기 쉽고 주변에 흔해서 새에게 관심이 생긴 사람이라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사람들 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박구리. 목소리는 좀 (많이) 시끄럽지만 사랑해주자.

세 번째 썸조(!)는 천마산에서 만난 곤줄박이로, '제발 내 손으로 와줘!' 하며 빌었더니 정말로 와준 기특한 새다. (그날 천마산 백설공주는 단연코 나였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곤줄박이는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는 편이라고. 나한테만 다정한 게 아니었구나... 살짝 씁쓸하지만 뭐, 그래도 귀여우니 사랑해주자.

새를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녔더니, 이제는 새를 보면 사진을 찍어 보내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들의 사진을 받을 때마다 나는 되지빠귀마냥 신나게 웃으며 화답해준다. 새를 보며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새를 좋아하는 것과 잘 아는 것은 다르고, 나는 새를 잘 알지 못하지만 잘 좋아한다. 내가 종종 새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은 그들을 동정(同定)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해해보고 싶어서이다. 몰랐을 때는 안보이던 것들이 알게 되면 보이게 되고, 자꾸 보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흔하디흔한 까치와 까마귀조차 귀여워 보인다. 그 와중에 까치 학명이 'PIKA PIKA피카피카'라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 북작커먼즈 오상이 (오현경)



새의 언어

지은이 | 데이비드 엘런 시블리
출판사 | 윌북
출판년도 | 2021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망할 수도 있지만, 새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탐조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아무튼, 딱따구리

지은이 | 박규리
출판사 | 위고
출판년도 | 2018

여기저기 나무를 쪼아놓은 것이 의도치 않게 주변에 큰 도움을 주는 딱따구리와, 의도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찾아 실천하는 상냥한 부부를 만날 수 있다.

읽을수동





숨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명상 칼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던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사회활동이 일시에 단절된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평생 바쁘게 이어지던 일상의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기고 나니,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난감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 막막한 마음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 화면 아래로 흘러가는 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상지도사 과정을 소개하는 안내 문구였습니다. 신선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그 우연한 자막 한 줄이 인연되어,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매일 명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대체 '명상'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상태가 곧 명상이냐?" 수년째 수행하고 있는 저로서도, 명상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명상은 그리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명상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편안히 누워서도 할 수 있으며,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중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위해 딱히 특별한 보조 도구나 거창한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 숨 쉬는 나의 몸과, 그것을 느끼는 나의 마음만 있다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선 허리를 바르게 펴고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가급적이면 눈을 살포시 감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단 며칠 동안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숨 쉬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활동입니다. 단지 내 몸의 숨을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물론 숨을 지켜보는 와중에 문득 다른 잡념이 끼어 들 수도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깜빡 잊어버린 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잠시 정신 줄을 놓았네!'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조용히 나의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명상의 수많은 갈래 중에서 이러한 방식을 한 자어로 '수식관(數息觀)'이라고 부릅니다. 숨을 쉬되, 들숨과 날숨의 주기에 맞추어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숫자에 집중하며 숨을 바라보다 보면, 이리저리 날뛰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밖으로만 향해 있던 생각이 안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명상을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 들려고 하면 할수록, 명상은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틈이 나는 대로 나의 호흡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단계에 도달하기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상을 통해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정말 고쳐야겠구나!' 하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저는 실제로 명상을 하면서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절친에게 "맞아, 그동안 그건 내 잘못이었어!"라며 진심 어린 생각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도 모르게 욱하고 화를 낼 상황에도,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명상하며 깨달은 대로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제삼자의 시선으로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나 스스로 나의 마음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게 되는 셈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격해지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고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단절의 위기 속에서 명상을 만나고 그 길에 입문하게 된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꼽습니다. 거칠던 마음의 모서리가 깎여 나가고, 호흡을 통해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요즘입니다. 비로소 나이에 걸맞게, 인간으로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따스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명상은 단지 하나의 일상일 뿐입니다.

| 뉴뉴할비 (수동주민, 혜안서가 참가자)









책과 함께 하는 놀이, 독서 모임

독서모임 후기

재미있고, 흥미롭고, 즐겁고, 신나는 취미가 생겼다. 독서모임에 가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다. 4월에 처음으로 북작커먼즈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너무나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 다른 관점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정말 흥미로웠다. 다들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책에 빠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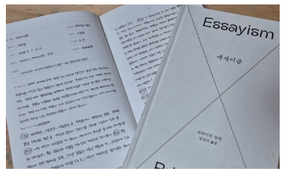
하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모습이 나를 안심하게 했다. 나도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되니까. 자신이 자유로울 때, 순수한 감성이 불쑥 나오는 것 같다. 그러한 모습이 나는 놀이로 보였다. 책으로 하는 놀이. 그래서 무척 신나고, 흥분이 되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설레임이 가라앉지 않았다.

독서 모임에서 잠시 현실의 생활을 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또 다른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은 내게 행복감을 주었다. 그 시간이 나의 순수한 감성을 느끼는 시간으로 나를 잠시 쉬게 하고, 힘나게 하는 순간이었다. 단톡방에서 모임원분들의 대화를 보면 나도 절로 웃게 되고, 그러면서 잠시 행복함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나도 행복해도 돼.'

나는 '북작커먼즈' 모임에 반했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고 공유하는 모습에 반했고, 다른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에 한 번 더 반했다. 다음 모임이 너무 기다려진다. 다음 책 놀이는 서로 어떤 대화를 하며, 집중을 하게 될까? | 북작커먼즈 세라 (최세란)













필사적으로 살아보려고, 필사

필사적 필사 이야기

우울증과 공황장애. 8월의 장마철에 과호흡과 경련으로 쓰러진 채 비를 맞으며 문득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독서와 필사. 시간 날 때 유유자적하는 독서가 아니라, '독'기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하는 '독'서와 '필'사였어요.

'3년 동안 500권 읽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로지 독서만 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읽은 책은 꼬박꼬박 독서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권당 100권을 기록할 수 있는 독서노트인데, 못생기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채워진 1호, 제법 예쁘고 단정한 글씨로 채워진 노트 2호를 지나 지금은 3호의 40페이지를 쓰고 있으니 2024년 9월 이래로 1년 9개월 동안 총 240권을 읽은 셈입니다.

필사는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저는 이제 독하게 책을 읽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의 근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독서토론모임도 운영 중인데, 제법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가요, 우리 고전문학북클럽 팀원들? 나중에 몰어봐야지, ㅎㅎ) 아무래도 '3년 동안 500권 읽기' 목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450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정도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저는 필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독기를 가지고 독서하고 필사적으로 필사하는 동안 세상이 아무리 휘둘러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가 생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내 뿌리의 쇠잔함 때문에 쉽게 넘어졌을 뿐,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괴롭힌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건강한 뿌리를 내려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건강한 뿌듯함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북작커먼즈 오낭이 (오현경)

대온실 수리 보고서

감성재활 독후경(景)





3. [보고서]

30대 제가 회사에서 했던 중요한 일은 보고서 쓰기였습니다. 우습게도 보고서가 올라와야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에 관계없이 보고서 작성은 중요한 일이고, 의무적으로 "잘"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명확한 단어, 간결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좋은 결론"을 전달하는 보고서만 작성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 성실한 수행을 통해 기대한 결과 달성!".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일을 잘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설-[대온실 수리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는 제가 써온 보고서와 너무 다릅니다. 명확한 단어도, 간결한 문장도, 정확한 전달도 없고, 긍정적인 표현도 좋은 결론도 없습니다. 오히려 몇 번씩 생각하고 생각하게 하는 표현, 다양한 색감의 단어, 시구(詩句) 같은 상징적인 문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둥그런 표현과 희미한 묘사가 우리를 이야기 깊은 곳으로 데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주인공 곁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공의 눈빛이, 그 손의 온도가, 그 뺨의 떨림이, 그 어깨에 내려앉은 슬픔이 어쩜 이렇게 옆에 있는 것 마냥 느껴질 수 있을까요! 작가의 섬세한 문체와 표현에 감탄하며 어떤 문장, 어떤 대사는 몇 번이고 소리 내며 되읽었습니다. 정말 잘 쓴 진짜 좋은 보고서

2. [수리]

주인공 영두는 문화재 수리 과정을 기록하는 보고서 작성 일을 맡아 서울 원서동에 가게 됩니다. 원서동은 학창 시절 머물렀던 "낙원 하숙"이 있는 곳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겪은 후 부러 찾지 않은 곳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야 그곳을 다시 찾은 영두는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그 때 그 장소 그 문을.

복원과 수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복원은 원래 상태나 모습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수리는 기능 회복이 우선입니다. 상태나 모습은 변했더라도 고장난 부분을 고쳐 다시 예전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 그것이 수리의 주목적입니다. 작가는 고장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장소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의 갈등과 오해, 상처와 연민, 그리움과 경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 사이는 복원이 가능할까요? 상처 나고 깨진 마음을 없었던 일처럼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때 속상한 마음,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그대로 두고 다시 새롭게 이어 붙여 가야 합니다. 고장나고 틀어져 어긋나 흐르던 시간을 다시 맞춰 함께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1. [대온실]

영두가 쓰는 수리 보고서의 대상이며, 등장인물이 연결되는 그 장소는 바로 창경궁 대온실 입니다. 1909년 일제가 창경궁을 유원지 창경원으로 격하(格下)하고 지은 유리온실 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 정부는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하며 동물원, 놀이시설, 유원시설은 대부분 철거, 동물들이나 일제가 심어 놓은 벚꽃들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대온실은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진 최초 서양식 온실로 건축사적 가치가 있고 궁궐 공간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슬픈 역사 기록처럼, 아팠던 창경원 시절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로 보존하되 기능할 수 있도록 수리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대온실처럼 영두도 슬픈 마음 기록, 아팠던 기억의 흉터를 갖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 저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마음들과, 자연스럽게 엷어지는 상처의 흔적들을 적어둘 뿐 수리의 목적도 결과도 말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맞춰져 가는 것을.

그리고 0. [시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봅니다. 도망쳤던 시간들, 외면했던 기억들, 마주하지 않은 관계를 다시 봅니다. "마주하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시시해졌다.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난 뒤의 모래사장처럼 마음의 표면이 평평하게 균형이 맞춰지는 게 느껴졌다. 고작 그 시시함으로." (25쪽) 마주하여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시시해지고, 그 시시함이 굴곡을 허물고 무너뜨려 평평하게 맞춰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주하면.

주인공 영두는 <대온실 수리 보고서>를 쓰지만 우리는 영두가 보여주는 <영두의 수리 보고서>를 읽어갑니다. 문 열기, 들어가기 그리고 다시 마주하기. 잊지 않으려 노트에 정서(正書)해 둡니다. | 북작커먼즈 기한 (엄진수)



대온실 수리 보고서

지은이 | 김금희
출판사 | 창비
출판년도 | 2024



쓰기로 마음먹은 당신에게

지은이 | 양다솔
출판사 | 한겨레출판
출판년도 | 2025

쓰기로 마음먹은 당신에게

독서&독서모임 후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나'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다솔 작가가 그것을 '글쓰기'라는 활동으로 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고, 마주해야 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공기를 들이 마실 때, 어느 순간 좋은 향기가 나서 그 향기를 쫓아, 그 향기를 찾고 알아내어, 나도 그 향수를 뿌리게 만드는 글이었다. 결국 그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글로 느껴졌다. 자신에 대해 다그치지 않고, 지그시 바라보는 용기를 슬며시 제시하고 있다. 각자의 개성을 '이상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 '이상한 아름다움'의 향기를 거부감이 덜하게 하는 글들이었다.

양다솔 작가의 글은 허브 향기 같이 느껴졌다. 라벤더, 민트, 캐모마일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내용으로 내 마음이 절로 치유가 되는 것 같았다. 자신을 수용하는 방법이 거대한 것이 아닌, 글을 계속 씀으로서 자신을 천천히 수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착한책방'에서의 활동이 양다솔 작가의 글쓰기 활동과 닮아 보였다. '북작커먼즈' 독서 모임과 '퍼머컬처 수동와밭' 텃밭 가꾸는 모임에서 선하고, 강요하지 않은 모습에서 비슷하다 보였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활동이 허용되는 순간들로 느껴졌다. 평화로움을 느끼면, 안심이 되고, 안심이 되어야 자신을 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각자의 내면에 있음으로 정리해보았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힘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양다솔 작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글쓰기로 터득했고, 그 사랑을 타인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내게 미소짓게 했고, 기대하게 되었다. 양다솔 작가의 세상은 따뜻해지겠구나..라고.

| 북작커먼즈 세라 (최세란)



밭일 수동

와밭 연혁

2026

- 3. 22 공동체 은행 빈고의 공유지로서 임대차 계약
- 4. 5 수동와밭 마을텃밭 가꾸기 26년 첫모임

2025

- 3~11월 마을텃밭 수동와밭 공동체 활동 진행
- 10. 26 허브 생활제 만들기 "허브샴푸"

2024

- 3. 17 수동와밭 땅고르기 작업
- 3. 29 소란쌤과 함께 퍼머컬쳐 텃밭 설계하기
- 4. 11 퍼머컬쳐 수동와밭 디자인 텃밭 만들기
- 5. 2 텃밭 퇴빗간 "땅방글"만들기
- 9. 4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 9. 20 생태화장실 "빙글"완성
- 10. 6 적정기술 벽돌화덕 만들기

마을텃밭 수동와밭

와밭 소개



2023년부터 3년간 착한책방을 대표공동체로 하여 수동지역 4개 공동체들과 연대하여 진행한 경기도 마을 종합사업을 통해서 2024년 착한책방 옆 주차장 아래 땅 100여평에 "수동와밭"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수동와밭커먼즈"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서 퍼머컬쳐 강좌, 생태화장실 만들기, 허브 생활제 만들기, 벽돌화로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종합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동텃밭 운영, 생활제 만들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여 종의 허브와 다양한 채소류가 자라고 있으며, 생태화장실, 퇴비간, 빗물저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고물을 모아 팔아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생태,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사진

















와밭에서 사는 허브를 소개합니다





라벤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효능 숙면유도, 두통완화, 피부건강, 항염작용, 위장 보호

활용 차, 팅크처, 오일테라피, 오일 마사지, 방향제, 생선



서양톱풀

오랜 역사를 가진 약용 허브

효능 지혈, 항염증, 항산화 및 항종양 효과, 월경통 완화

활용 차, 생선, 해산물, 샐러드 가벼운 찰과상에 소염효과



딜

새콤하고 상쾌한 향을 가져 해산물 요리와 잘 어울리는 허브

효능 소화 개선, 가스 제거, 항산화, 콜레스테롤 조절, 뼈건강

활용 오이피클, 샐러드, 씨앗을 우려낸 차는 소화와 숙면에 도움



오레가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천연항생제로 활용된 치유능력이 뛰어난 허브

효능 강력한 항균 및 항생, 소화 불량개선, 항산화, 통증완화

활용 토마토 소스에 첨가, 육류 냄새 제거, 오일과 식초



차이브

몸에 좋은 유황 성분과 영양소 풍부. 꽃은 관상용으로 이용

효능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조절, 면역력 강화, 노화방지

활용 크림치즈와 딥소스, 잘게 썰어 고명으로 활용



세인트존스워트

유럽에서 천연우울증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허브

효능 항우울, 갱년기증상 완화, 스트레스 해소, 소염 소독

활용 약으로 복용, 차, 오일



허브 베르가못

특유의 향기와 꿀 때문에 밀원용으로 애용.

효능 호흡기 질환 완화, 천연살균 및 소독, 스트레스 해소

활용 차, 화려한 요리 고명, 향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와밭 에세이1

내리는 비 소리에 문득 와밭의 허브를 걱정하는 나. 내가 이럴 줄 몰랐지.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새싹과 꽃들 허브의 향기로움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지. 맨발로 와밭 사이 흙길을 걷는 커먼즈 친구를 바라보며 느끼는 신선함. 함께 잡초를 뽑아 허브 사이사이에 살짝 올려두면 뽑힌 잡초가 새로 나올 잡초를 막아주는 멀칭기법에 느끼는 신기함.

루꼴라 * 쏘렐 * 펜넬 * 차이브 * 오레가노 * 타임 * 베르가못 * 세인트존슨워트 * 스위트 바질 등등등 새롭게 배우는 허브 이름들이 주는 신나는 감정들~ 허브 향기 가득한 순수한 성분으로 만들어 사용해보는 허브샴푸. 모닥불에 익어가는 허브 생선구이와 불멍으로 함께하는 저녁시간.

상추, 방울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 토종작물 재배로 배우게 되는 소중한 생태적 가치. 한 해를 보내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 올라오는 새싹을 보며 느끼는 자연의 순환과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의 소중함.

이 모든 순간들은 착한 책방의 마을 텃밭 수동와밭에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 중 일부입니다. 살아가며 확실하게 알게 된 한 가지는 내가 모르는 것이 아주 많다는 사실. 수동 와밭 활동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점점 행복해지는 지금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행복한 기분으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허브티 한잔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앞서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 같이 활동해주시는 친구님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 허브를 사랑하는 진진 드림

쇠뜨기, 오해해서 쇠리...

와밭 에세이2

4월 5일, 그 당시의 와밭은 와밭보다는 쇠뜨기 밭 같았다. 작년에 심은 허브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다는 수달선생님의 뿌듯한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쇠뜨기가 몹시 풍성했는데, 일부러 심었다고 해도 과연 믿었을 것이다. 쇠뜨기는 땅속줄기로 퍼지는 식물이라, 완벽히 제거는 어려울 텐데 어쩌지? 가뜩이나 피리한 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다.

6월, 현재 쇠뜨기의 위상은 그리 대단치 않다. 허브들이 본격적으로 자라나자, 쇠뜨기가 비교적 공손하게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 (물론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아이들은 마구 뜯어 멀칭으로 썼다.) 쇠뜨기는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지금도 허브들 사이에서 태연하게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쇠뜨기는 생각보다 욕심이 없었고, 허브들은 생각보다 유약하지 않았다.

내가 [와밭]에서 땅을 일구며 깨달은 점은, 자연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땅에 작물을 심고나면, 작물 외의 것들은 잡초라 칭하며 작물보다 적게 나고 자라길 바라지만 자연 앞에서 그들은 모두 평등한 식물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내쫓지 않고 함께 자란다. 서로 예우하면서. 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잡초를 뽑아 그 균형이 무너지는 듯싶으면 그 빈 자리를 헐레벌떡 다른 잡초가 메우는 것이다, 서로 예우하면서.(하이고..) 나 원 참, 원 참 나, 차라리 쇠뜨기일 때가 좋았다.....

이 자리를 빌어 쇠뜨기에게 사과하고자 한다. "쇠뜨기야, 네가 와밭의 다른 작물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었어. 오해해서 미안하다. 와밭에서 같이 잘 살아보자! (너무 많이는 말고!)"

글에 더하여. 내가 처음 쇠뜨기에 대해 글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쇠뜨기의 유의미한 쓰임새(일명 효.능!)에 대해 써야하나 싶었다. 하지만 사람한테 이롭지 않으면 어떤가? 그래서 규소가 풍부해 모발과 손톱, 피부탄력에 좋으며, 옥수수수염과 블렌딩하여 차로 마시면 좋다는 말 따위는 적지 않으려고 한다.(하하)

| 와밭 잡초 전문가 오냥이 드림

소식지 출간 후기

책수달 | 임준구 모처럼 학창시절 교지부 활동을 하는 것 같은 설렘과 즐거움의 기분을 선물 받았네요. 최소 20년 젊어진 기분~

오Z | 오승현 첫 잔뿌리! 〈그럴수동〉 창간호 축하합니다. 넓고 깊은 뿌리로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기한 | 엄진수 유튜브 왜 보냐요. 착한 책방 가면 되는데. 읽고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수동!

세라 | 최세란 독서모임과 글쓰기로 인해 나의 내면이 금이갔다.

오냥이 | 오현경 편집장이라니! 험하게 자란 제가 감히 이런 귀한 자리에 있어도 될까요? 뜻깊은 시간입니다♡